

우리의 한동,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합니까?

2019년 2월 17일, 십여 명의 졸업생이 서울 마포구에 모여 교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경험은 몇 년을 걸쳐 꾸준히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도,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교내 성폭력이란 늘 존재했지만 이야기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용기를 냈을 때도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한동의 구조와 제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요청합니다.

현재 한동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부족합니다. 올해 '한동인성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수로 추가된 것이 전부입니다. 타 대학에서는 신입생, 학생 기구 리더십, 예비 교환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해 성폭력 예방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연세대 의과대학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에게 성적 조회 불가와 같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공동체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한 기독교 대학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후, 최근 1년간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에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 교내 구성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요청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사건 당시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 경험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학교 당국에 진술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 돈독한 한동 공동체의 경우, 우리가 아는 가해자가 '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 경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해 경험자에게 가해자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하는 등 연이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 내에 성폭력 피해 경험자와 가해자가 존재할 때, 우리는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돕고 대응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교내 구성원 모두에게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시행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칙에 따른 성폭력 사건 처리를 요청합니다.

한동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대책위원회 구성 혹은 성상담실의 비공식 중재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피해 경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례도 접했습니다. 또한 본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비밀 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수업시간에 사건을 암시할 수 있는 언급을 해, 피해 경험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동처럼 좁은 공동체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규칙에 명시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강조하고, 비밀 보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칙을 준수하여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독립적인 성폭력 상담소 설립을 요청합니다.

타 대학과 같이 독립적인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하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경험자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교내 상담센터 산하 성상담센터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사건 조사와 피해 경험자 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2차 피해 방지 교육 모두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 상담소 설립은 필수입니다.

한동에 성폭력 상담소가 설립된다면 이전보다 현저히 개선된 조사가 가능합니다. 독립 공간이 제공될 시 조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 경험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동은 독립적 성폭력 상담소 설립에서 시작됩니다.

한동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동이 성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WE, 한동

강솔지 김예지 김혜원 설유진 신형지 양대은 이세인
장예진 정하윤 주영은 차윤경 차지애 최주연 황찬주



온라인 연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WE(Work to Encourage)는 '나는 한동대를 떠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남기고 자퇴한 학우를 중심으로, 2019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 내 성폭력 관련 학칙 연구, 타 학교 취재, 2차 피해 방지 카드 뉴스 제작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희는 위 요구 사항을 학교 리더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교와의 대화 과정은 'WE 한동'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겠습니다.